

원방테크 미국 본토 시장에서 약 600 억원 드라이룸 장비 수주

- ▶ 블루오벌 SK(BlueOval SK) 美 켄터키주 배터리공장 장비 수주
- ▶ 미국내 성공적인 레퍼런스 기반으로 드라이룸 사업 글로벌 확대

[2022-05-24] 글로벌 클린룸 및 드라이룸 전문기업 원방테크(053080, 대표이사 구자겸)의 종속회사인 원방테크 USA 가 총 600 억 원 규모의 블루오벌(BlueOval) SK 미국 켄터키주 배터리 공장 드라이룸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밝혔다.

원방테크의 100% 종속회사인 원방테크 USA 는 최근 SK 이노베이션과 미국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(BlueOval SK)와 전체 규모 약 600 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. 공사 기간은 올해 12 월부터 2024 년 6 월까지 약 19 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.

이번 수주는 블루오벌 SK 의 114 억 달러(13 조 원) 미국 현지 투자 계획과 관련이 있다.

앞서 2021 년 9 월 블루오벌 SK 는 전기차 조립공장과 3 개의 배터리 공장 건설 목적으로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. 이러한 가운데 원방테크는 켄터키 공장 내 설치될 공조 장비 수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켄터키 공장은 190 만 평(628 만㎡) 부지에 86 기가와트시(43GWh 2 기)로 건설될 예정이다.

해당 수주를 통해 원방테크는 배터리 제조공정 내 먼지, 수분 침투 방지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드라이룸(Dry Room) 장비를 공급한다. 드라이룸은 실내 공기 조건이 노점온도 -40 °C, 상대습도 0.5% 이하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공정에 있어 핵심 시설이다.

원방테크는 2019 년부터 드라이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. SK 이노베이션 헝가리 1.2 공장,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의 국내외 주요 2 차전지 제조공정 구축 공사에 참여했고, 2021 년에는 SK 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제 1 공장 및 제 2 공장 공사 수주에도 성공하며 기술 경쟁력을 지속해서 입증해왔다.

회사 관계자는 “원방테크만의 드라이룸 제습 및 공조설비 기술력과 다수의 성공적인 레퍼런스가 이번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”라고 전했다.

이어 “최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 차전지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2 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비 등에 대한 시설투자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.”라며, “원방테크는



미국 내에서의 성공적인 대규모 드라이룸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, 아시아 등의 지역으로 드라이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원방테크는 지난 1 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 호실적을 발표했다. 연결기준 매출액 1039 억 원, 영업이익 75 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 109.8%, 185.2% 증가했다.